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지리교육의 현재와 문제점

박철웅*

Present and Problems of Geography Educa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ChulWoong Park*

요약 : 교육은 어떤 목적 아래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과정(process)과 실천(practice)이다. 그 과정과 실천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교육과정이다. 최근 지리과목은 교육과정 개편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교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본 방향 및 교수-학습 내용 및 교사 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학입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지리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 내부에는 인식론적 그리고 정치적 긴장이 내재돼 있어 이론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지리과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검증 그리고 전향적 자세를 찾아야 한다. 합의되지 못한 지리교과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합의와 교육과정 변화에서 약화되었던 지도교육, 지정학, 인구와 환경론, 문화와 공간적 현상 등 새로운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주요어 : 교육과정, 지리과목, 지리교육과정, 지리의 위상, 미래지리교육과정

Abstract : This paper discusses about the present and problems of geography education subject in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Education is a process and a practice to do for training human. It is the curriculum that contains contents of this process and practice. Recently geography subject comes to a crisis in the curriculum reform. Changes in national curriculum subject contents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basic direction of education, and teaching and learning, have an effect on the teacher training and college admissions. These circumstances are the result of deficiency of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geography subject.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were not theoretical as national curriculum involves epistemological and political tension. This study' purpose is to examine how to change the status and role of geography subject in curriculum reform. From now it should seek a reflection and a testing, a forward-thinking stance on geography curriculum through those points. Also should provide for the future curriculum, for accepting new accomplishment of geography; geopolitics, population and environmentalism, culture and spatial phenomenon, map that was weakened, etc.

Key Words : Curriculum, Geography subject, Geography curriculum, Status of geography subject, Future geography curriculum

I. 들어가며

최근 교육과정 개편 등 지리교육을 둘러싼 교육 및 사

회 환경에서 지리교과의 위기성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지리과목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 및 교육과 행정 엘리트들의 지리에 대한 인식 결핍과 한계에 따른 결과이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rkcw@chonnam.ac.kr)

기도 하다. 교육과정 내부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식론적 그리고 정치적 긴장이 내재돼 있다. 보통 교육과정 연구 관점의 적용이 일부 작용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연구에서 거의 작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론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 적용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지리교육자 대부분이 공감하리라 본다.

내부적으로 지리교과는 교육과정에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성, 예를 들어, 독도 문제, 인성, 배려와 나눔, 성교육, 민주시민성, 에너지 절약 등 지리교과와 직·간접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 주도적인 교과 내용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가끔 문제의 원인을 대학 입시 교육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과교육방법에 그 한계에 있다고 하지만 상황은 다른 사회과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우리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하고 주어진 체제와 과정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주로 교육과정개편 사후에 나타났고, 이에 다급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리교육 내부의 이견으로 통합 사회과의 추세를 인정하고, 끝내 '지리'라는 교과명도 쟁취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아쉬운 결과이다. 이로써 지리는 사회과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인식이 고착되었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리과목의 정체성과 과목의 독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한참 지리교육과나 지리학과의 증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미국에서는 이미 지리학의 위기가 언급되었다(Haigh and Freeman, 1982). 1980년대 중반 미국지리학회장이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리학자, 교사, 교육 행정가들을 망라한 주도적인 모임이 결성되었으며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인해, 미국교육진흥위원회(NCEE)의 보고서에 5대 기초과목으로 '지리'과목이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AAG와 NCGE가 주도하여 미국지리교육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할 것과 주도적이면서 공개적인 참여, 그리고 내부적 합의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 및 수능시험의 개편, 그리고 최근 9급 공무원시험과목의 개정령 등에서도 지리교과에 대한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불과 수년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지배해 온 총론 담당 교육

학자들과 교과부의 교육과정 담당자들의 지리교과에 대한 인식은 '사회'과목 속의 한 영역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배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지리과목의 필요성보다 사회과목의 중시를 당연시하였다. 이러한 교과 인식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상호연관성과 복잡한 이야기구조를 가지게 된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지리교과의 위상과 독립성에 대한 역설과 주장은 작고 쓸데없는 일에 트집을 잡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정치화된 교육과정의 속성에 기인한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이성중심주의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포스트모더니즘에서조차 지리의 공간성과 다양성의 이해가 주목받질 못하는 현실도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지리교과에 대한 혁신과 위상 제고에 대한 대응이 모색해야 할 때이다.

II. 2007년 이후 지리교과 교육과정 개편 과정

교육과정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확정 고시되기까지 절차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대개 40개월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이경환 등, 2002). 교육내용의 변화에 치중한 제6차교육과정은 2년 8개월(1990.3-1992.10)이 걸렸고,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및 시설, 교원 등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온 제7차교육과정은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1995년 5월31일에 시작하여 제7차 중등학교교육과정 고시한 1997년 12월30일까지 근 2년 8개월이 걸렸다. 이후 중등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2004년과 2006년에 총론과 일부 교과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고등학교는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 일부 내용을 개편하면서 2007년까지 교육과정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이후 크게 두 번의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수차례의 부분 개편이 있었다. 두 번의 전면 개정은 흔히 2007개정교육과정과 2009개정교육과정이라고 칭하는 개정이다. 첫째 2007개정교육과정(2007.2)은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은 그대로 둔 채 교과별 개정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중·고등학교가 2008년(9월/12월)에 두 번의 총론을 개편하였고, 2009년 3월에 부분 개편을 통틀어 말한다.

둘째,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2009년 3월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똑같이 2009년 12월에 총론을 개편하였고, 2010년 5월, 2011년 8월, 2012년 3월 부분 개편이 연이어졌다. 최근에 다시 2012년 6월에 들어 인성교육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다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교과과정의 위기는 어쩌면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이수과목축소와 사교육의 방지를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강화한다는 명목아래 교과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의 논리를 내세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학교 9학년까지로 단축시켰다. 중학교는 교과군제가 도입되어 사회교과군에 도덕이 추가 편입되면서 역사, 도덕, 사회로 재편되었고, 학년 구분이 없이 총 510시간이 편성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경제지리 과목이 폐지되어 지리는 2과목이 되었으나 역사와 일사는 3과목을 유지하게 되어 선택 및 심화과목수의 형평성을 잃게 되었다.

2010년 5월 개편에서는 역사 및 한국사 강화에 따른 역사 과목의 별도 분리로 인해 중학교에 1,3학년에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으로 사회과의 학년체계가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거 10학년 사회)는 지리와 일반 사회의 내용으로 내용체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1년 8월 개편은 중학교 시수 편제에서는 2010년 5월과 동일하다. 이를 주당으로 환산하면 주당 15시간으로 이전과 시수의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과학 과목이 644시간으로 사회 과목에 비해 더 많은 시수를 갖게 되었다. 사회과는 과목명이 크게 사회, 역사, 도덕으로 3분되면서 가감 없이 학년별로 편제시키면 각각 170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반면 '사회' 과목은 즉 지리와 일사의 담당은 170시간을 서로 배분하게 되어 지리만의 시수로 실제 85시간(주당 2.5시간)이 배당된 셈이다. 이전과 비교하면 지리와 일사시수는 3.5시간에서 1시간이 축소된 것이다. 고등학교 과목은 일반과목과 심화과목으로 구분하여 사회(역사/도덕 포함)를 비롯하여 10개 교과로 단순화하였다. 국·영·수를 기초과목으로 하고, 사회와 과학은 탐구과목으로 편성하였다. 심화과목으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2과목만이 남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2010년 5월과 달리 2011년 8월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필수였던 고등학교 '사회' 과목이 폐지된 것이다. 결국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 폐지에 따른 시수 감소는 주당 3시간(지리로는 1.5시간)이 되어 전국 고등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이는 엄청난 교사의 과원이 생기게 되고, 이 사회과 과원이 다른 중·고등학교로 전입하게 되면 곧바로 지리교원수급은 공급과잉이 되어 향후 지리 및 사회교사의 임용정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러한 대책 없는 숨 가쁜 교육과정의 개편들은 알게 모르게 지리교과의 위상과 시수의 축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리교육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교과부는 사회과를 2012년 3월에 다시 개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제교육의 강화라는 경제단체의 압력으로 실용경제가 추가되고, 폐지된 고등학교 '사회' 과목을 '통합사회'로 다시 부활시켰다. '통합사회'는 최종 '사회'라는 과목명으로 고시되었지만 교과내용의 선결과 조직에서 지리교육관계자가 배제되고, 결국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런 교과상이 되었다. 더욱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의 과목성격이 교육상담, 국어, 철학자들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사회과에 대한 이들의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금년 6월에 들어 갑자기 중·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일탈 및 왕따 현상, 그리고 연이은 청소년의 자살 등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사회과에 인성교육을 삽입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사회과는 인성교육을 성취기준에 끼워 넣는 식의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 성과도 없이 도입되는 이러한 교육과정은 개편은 결국 지리교과 쪽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방이후 교수요목 시기(1946-1954년)를 지나 1954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전면 및 부분 개정을 포함한 8차례나 개정과 개편이 일어났다. 교과서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불리던 제6차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불리는 제7차교육과정 개정 이후 특히 2007개정 이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요구성에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수시 개편체제가 되면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적용으로 일선 학교 현장과 교과서 제작 자체가 엄청난 혼선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백년대계의 교육과정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입맛에 맞게 개편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 연구시간의 부족 등의 졸속을 피할 수가 없었다.

2007년 개정 이후 지리는 사회과 틀에서 자생적 교과의 위상을 제고시키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느꼈으며, 중

심 교과목의 인식에서 배제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일괄해서 제시하기조차 어렵지만 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기초로 하여 표 1을 작성하였다. 제 6차에서부터 2012년 6월 개정까지의 개정과정을 지리과목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III. 최근 지리교과과정 개정의 참여와 역할

2011년 8월 고시된 교육과정은 이미 총론 부분에서 사회과의 시수배정과 과목 축소로 인하여 교과교육과정의 공모가 1차에서 무산되었다. 사회과목의 축을 이루고 있

표 1. 제6차 이후 지리과목의 교과과정 변천과정 일람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필수			필수	선택	
제6차	사회(지리/역사/일사)			공통사회(한국지리)	세계지리	
	1학년(지리)	2학년	3학년(지리)	1학년	2-3학년	
	주3시간	주4시간	주3시간	주4시간	주3시간	
제7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중학교: 논리적통합 (인간과 공간/시간/사회)
	사회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7학(지리)	8학(지리)	9학(지리)	10학년(지리)	11~12학년	
2007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중학교: 역사분리형통합
	사회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7학년(지리)	8학년	9학년(지리)	10학년(지리)	11~12학년	
2008.9 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역사중시
	사회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7학년(지리)	8학년	9학년(지리)	10학년(지리)	11~12학년	
2008.12 개정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영어과 강화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선택과목 경제지리폐지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09.12 개정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창의적 체험활동강화 환경과 녹색성장 삽입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10.5 개정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역사/한국사
	사회교과(역사 도덕포함)			기본과목 사회과 (역사도덕포함)	심화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	
	1~3학년			1~3학년		
2011.08 개정	510시간(주당 15시간) (지리14단원/일사14단원)			주당 7.5시간	주당17.5시간 (2년간 사회과 총합)	고등학교 '사회' 폐지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12.03 개정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폐지 '사회' 부활 경제교육 강화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12.06 개정중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인성교육강화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2012.06 개정중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인성교육강화
	2008.9개정과 동일			2008.9개정과 동일		

는 지리와 일사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축이 7차 교육과정보다 투입되는 인원이나 기간이 줄었다 보니 공청회 및 현장의 의견수렴은 극히 형식적 절차를 취하게 되었다. 더구나 교과간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더욱 교과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그 와중에 국가편찬위원회를 비롯하여 역사학계의 주장과 보수적 역사 기술과 우파 역사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과 내에서 독자적 시수 확보해 가면 사회과를 도외시 하였다. 이는 6, 7차 교육과정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과거 정부의 국책과목으로의 회귀로 보일 정도이다.

그간 사회과는 지리와 역사, 그리고 일사(공민)가 해방 이후 수차례의 교육과정에서 나름의 3분법을 지켜오면서 분과와 통합을 번갈아 왔다. 하지만 2011년 개편에서 도덕과가 폐지되고 사회과로 편입되면서 사회과의 3분법적 구도가 깨졌다. 더욱이 지리는 과목 명칭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치 사회과는 사회, 역사, 도덕으로 3분화되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구도는 일사영역에서도 대단히 불만이 컸다는 점에서 모처럼 지리와 공조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2011년 2월, 8월에 고시된 사회과 개정교육과정 2차 공모에서 일사와 함께 지리교육 관련자도 초·중·고(전문계 교과 포함)를 아우르는 사회과목의 교과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하였다. 당시 지리는 6명, 일사가 8명(연구책임자 포함)이 참여하였다. 일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12개의 전문계 교과목 중 지역이해와 세계문제를 제외한 10과목을 일사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사회교과과정의 연구는 주로 지리와 일사가 영역을 나누어 분담하되 협의 과정을 거쳐 서로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지리팀도 공동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영역별로 초등사회 1명, 중등사회 2명, 한국지리 1명, 세계지리 1명, 지역이해와 세계문제의 전문계 과목을 일단 분담하였다. 3월 22일 회의를 시작해서 1차 시안을 6월 30일에 완료하는 일정을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리팀의 연구 개발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개발 내용

- (지리영역의) 교과의 목표
- 내용의 영역과 기준 : 내용체계, 성취기준(학년군

별, 영역별, 학습내용 성취기준)

- 교수·학습 방법
- 평가

(2) 개발 대상 과목

- 초등 3-4학년군 사회(204시간-연 6단위, 2년간)
- 초등 5-6학년군 사회(상동)
- 중학교 '사회(1-3)'(170시간)
-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 한국지리, 세계지리
- 전문계(국제고) 과목 : 지역이해 등

이런 연구개발 과제는 외부적 내부적 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외부적 요인으로 일사과와의 관계성이다. 과거 사회과 교육과정의 통합에 적극적이던 일사가 급변 교육과정에서는 지리교과명의 독립과 사회과 분리에 적극적이었다. 자연 중학교 '사회'는 지리와 일사의 분책을 겨냥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양측의 이견이 없었다. 다만 아울러 중학교 '사회' 과목의 제한적 과목군 편성에 따라 교과내용의 분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성취기준의 수와 대단원의 수에서 주도권의 논란이 예상되었다. 자칫 성취기준의 수나 대단원의 수에서 일사보다 적게 편성되는 상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지리팀은 가장 우려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중학교 '사회'에다 지리영역이 폐지된 10학년 '사회'의 내용을 어떻게 수렴하고 배열하면서 교과 내용량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초·중·고에 따른 지리내용의 중점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시퀀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연구는 대부분 초·중·고가 별도로 그리고 과목별로도 별다른 협의 없이 개별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초·중·고를 비롯해 전체 지리과목이 함께 공동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간 시퀀스와 스킵가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로 체계화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였다.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일사와의 조율이 필요했고, 별도로 작업하는 역사와 도덕 과목의 결과를 예외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차 공청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중학교 '사회'의 내용 과다에 가장 많은 지적과 현장의 애로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적 실현보다도 본질적으로 교과의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구

조직 속성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었다. 지리 과목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와 전략적 대응이라는 점 자체가 지리교육의 너머인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거버넌스에 문제이지 결코 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이기적인 속성을 어떤 한 과목의 희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리는 이미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사회 과목의 축소에 따른 지리 과목의 불리성에 힘겹게 대응과 행동을 취했다. 노력 결과 사회 과목을 2과목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리 교과가 사회과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때의 경험으로는 이 문제에 과목 상 심각성을 느끼고 조직적 대응을 한 경우는 지리과가 유일한 셈이다. 다른 사회과는 강 건너 불 보듯 했다는 점에서 사회과의 본질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위적 통합적 한계를 사회과가 그대로 안고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1년 8월 고시 개정교육과정은 사회, 역사, 도덕이라는 3분에 '사회'내의 지리와 일사라는 2분을 최선의 합의로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결국 원하는 '지리'라는 과목명의 획득은 이루지 못했다. 교육과정 담당자가 구두와 문서로 약속하였지만 이는 결코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 교육적인 안목과 선택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셈이다. 국가교육과정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은 너무도 탁상공론적이란 점, 그리고 일개 연구사나 연구관에 의해서 교과와 전문성과 교육이 재단되는 것에 대한 것은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이다.

이처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조차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치적 세력의 우세와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꼭 짚고 가야할 문제이다.

IV. 향후 전망과 대응

교육은 어떤 목적 아래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과정(process)과 실천(practice)이다. 그 과정과 실천의 내용을 담은 것이 교육과정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법이 정하는 효력을 갖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변화는 학교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본 방향 및 교수학습 내용 및 교사 양성에

도 영향을 미치고, 대학입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그간 수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과 수정이 있어 왔다. 근자에 와서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편제 등이 교육과정의 대강화의 지향과 맞물려 자주 진행되어 현장의 적용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정권에서의 교육과정은 짧은 기간 내에 정부의 구상에 맞게 자주 바뀌는 체제의 지향에 따라 사회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특히 도덕이 사회과에 포함되면서 사회과의 복잡한 지식체계의 틀은 예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

현행 및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지리교육은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했던 10학년 '사회'가 폐지됨으로서 내용체계 재구조화 및 지리과 교원 수급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과정 분야 내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식론적 그리고 정치적 긴장이 내지하고 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연구 관점의 적용이 일부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고, 심지어 이론적이지 못하며 잘못 적용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부르디외(Bourdieu)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동은 엄격한 합리성과 계산에 근거해 행해지기보다는 아비투스(habitus)인 일정한 기억과 사고방법, 감정의 표현방식 그리고 사회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관습행동의 프렉티스(practice)로 수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아비투스나 프렉티스가 사회과 및 지리교육의 재생산 역할을 하는 가이다. 교과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 상태가 과거와 달리 교육 및 대중문화 등 문화적 생활양식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과 습관을 지배하는 관계로 이 때문에 현재 사회의 권력관계가 쉽게 가시화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은 가끔 일반 매스컴에서의 교육과정이 교육적 접근이나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주도권의 다툼에서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향후 사회과는 과학과처럼 이제 4분법 체제로 안정된 구축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사회과의 분리를 추구하든가 하여야 한다. 인위적인 통합된 사회과도 서로 과목별 특성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도덕과 일사는 사회과 혹은 공민과로 그리고 지리와 역사는 지리역사과로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막다른 골목에서 선 우리로서는 향후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검증 그리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합의되지 못한 지리교과의 핵심키워드에 대한 합의를 우선하여 교육과정 변화에서 약화되었던 지도교육, 지정학, 인구나 환경론, 문화와 공간적 현상 등 새로운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리교육자 모두가 새로운 지리 지식에서 적극적이고도 성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불확실한 세계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반세기 후의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지닌 목적과 잠재력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갖고 그 같은 의무와 가능성을 포용하는 체계적인 학회의 구축과 연대와 연합을 끌어내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자체도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이견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개정팀들은 주어진 한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고자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후 교육과정 개편에도 큰 경험과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72, 「제6차 교육과정의 개요」.
- 교육부, 1997,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과교육과정 개발 방향」.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회과교육과정」.
- 남상준, 1999, 「지리교육의 탐구」, 교육과학사.
- 서태열, 2005, 「지리교육학의 이해」, 한울.
- 이경환·박제윤·권영민, 2002, 「한국교육과정의 변천」, 대한 교과서주식회사.
- Haigh, M.J. and Freeman, T.W., 1982, The crisis in American geography, *Area*, 4(3), 85-190.
- Valis Deux, 2000, 남도현 역(2002), 「현대사상」, 개마고원.
- 교신 : 박철웅,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parkcw@chonnam.ac.kr)

Correspondence : ChulWoong Park, 500-75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parkcw@chonnam.ac.kr)

투 고 일: 2012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9일
투고확정일: 2012년 6월 22일